정동자본주의 하에서의 기본소득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 플랫폼이 정동affect을 대하는 태도

펜데믹 이후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킨 부분이 플랫폼자본주의의 등장이다. 플랫폼자본주의는 정동자본주의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플랫폼이 공동체의 흉내를 내고 판을 깔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성으로 하여금 정동affect 즉, 생명력과 활력을 발휘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플랫폼의 판 위에서 웃고 울고 즐기고 향유하고 활력과 정동을 발휘하면 그 이득은 모두 플랫폼 소유주가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플랫폼은 정동을 천연자원과 같이 다룬다. 플랫폼에서 정동을 촉발하는 참여자들은 큰 부수적인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재미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노력은 참으로 눈물겹다. 다시 말해 플랫폼에서의 정동을 부추기고 촉발하고 생산하는 참여자들은 '활력정동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자본이 된다'는 명백한 사실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정동의 흐름이 발생되는 지점이나 머무르는 지점마다 화폐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의 다양한 정당들조차도 활력을 발휘하게 하는 플랫폼의 구도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도 드러난다.

여기서 정동은 ① 정서변환양식 – 감정emotion과 정서affection는 꼼짝 안할 때 마음으로서 우발성과 돌발성, 공회전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시 말해 아주 날카로운 포크와 나이프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서과 감정이다. 이에 반해 정동은 정서와 정서를 정렬하고 수선하고 정돈하고 배열한다. 다시 말해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런히 배열하여 '맛있다'라는 마음으로 이행하는 것이 정동이다. ② 흐름으로서의 정동 – 정동은 인지부조화처럼 가브리엘 타르드가 말한 양자적 흐름을 발생시키는데, 그것은 유행, 트렌드, 따라 하기, 모방 등을 의미한다. 정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모방의 욕망이라는 점에서 '나처럼 해보면 재미있을 거야'라는 부추김을 하는 인플루언서들의 행위양식이 있다. ③ 상호작용으로서의 정동 – 정동하기/정동되기의 과정은 능동/수동의 과정이 아니다. 정동순환은 정동하기를 미학화

하는 돌봄하기의 양식만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동되기로 정동적 반응을 하는 돌봄되기의 양식에서도 가치를 생산한다. 이를 욕망가치, 혹은 정동의 강렬한 가치라고 펠릭스 가타리는 말한다. 그 밖에 정동의 역할은 정서와 정서 사이의 이음새의 역할 어퍼던스라고 불리는 매끄러운 행위유도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2. 정동자본주의에서의 욕망노동과 욕망가치

정동자본주의의 개막은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에 있어서는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이 개방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성장주의는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인지자본주의를 거쳐 정동자본주의를 최근의 양상으로 드러냈다. 인지자본주의는 팬데믹 이전에 주로 쟁점화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 골목상권 대기업 진출, 1세계와 3세계의 분리, 집단지성에 대한 갈취 등을 '코드의 잉여가치'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었다. 주로 '의미화=가치화=코드화'를 공동체의 외부에서의 전문가들이 해내고 그것을 갈취하는 인클로저의 색다른 형태였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질적 착취를 도모하는 자본의 등장은 개척하고 추출하고 채굴할 외부의 상실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지자본주의 역시도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자, 플랫폼자본주의로 점차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컴퓨팅 중심으로 인지자본주의를 넘어서 정동의 흐름이 보여주는 인지부조화를 확률론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딥 러닝으로서의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정동자본주의에서의 욕망노동은 플랫폼에서 머무르면서 정동을 촉발하고 정동이 촉발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존의 욕망노동에 대한 구도들은 ①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다음날 출근하기 위한 준비동작이라는 점, ② 정신장애인이 상담을 받고 분석노동을 그 자신이 한다는 점, ③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상화노동을 한다는 점, ④ 아동들이 벽에 색칠을 하면서 발달노동을 한다는 점, ⑤ 가정주부들이 가사노동을 통해서 살림을 한다는 점 등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이는 근대의 주인공담론이 갖고 있는 주체만이 가치증식에 능동적이라는 구도로부터 벗어나 있다. 다시 말해 근대의 이분법은 대상으로 간주된 소수자, 민중, 생명, 여성 등의 욕망노동을 부불노동으로 만듦으로서 자본화를 할 수 있었던 구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자본주의 개방은 플랫폼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네트워크 노동으로서의 욕망노동을 가시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노동은 복잡계로서의 전자적인 그물망에서 인간, 사물, 생명, 자연 등이 비스듬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기계류 혁신의 원천이 되는 관계 맺는 방식과 관계 내부에서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욕망노동에 따른 욕망가치(=정동의 강렬한 가치)를 그림자노동이나 부불노동으로부터 구출하여 보편적 기본소득의 형태로 가치화하는 것은 정동자본주의로 하여금 천연자원으로서의 정동을 추출하고 채굴하는 인클로저 방식이 아니라, 협력자와 동반자, 파트너로서의 욕망노동의 주체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생산한 욕망가치를 적절히 지불하고 협동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전문가의 세련된 능력이 아니라, 다소 어눌할 수도 있는 민중과 소수자들의 수행이라는 특이점이 네트

워크와 공동체, 사회를 풍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빅데이터의 재료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지성을 성장시키며 기계류의 혁신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볼 수 없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동의 상호작용과 돌봄모듈

앞서 언급했듯이 정동의 미학화를 통한 정동순환의 보존을 위한 행위양식이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동하기/정동되기는 능동과 수동이 아니라고 할 때 정동적 평등을 위해서 그간 정동의 순환에서 수동이라고 간주되었던 주체성에 대한 가치화의 가능성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특히 2~3인 단위의 돌봄모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완화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기후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돌봄의 수행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화폐화된 돌봄 다시 말해 돌봄의 가치화를 통해서 화폐를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을 바탕으로 받고 있는 영역에서 과연 기후재난 상황에서 능동적인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쟁점이 그것이다. 결국 돌봄의 가치화의 형태는 한편으로는 가치의 저평가라는 지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돌봄의 시장화로의 편입을 통한 '고귀한 의미로서의 자발성', '자원에 따르지 않는 야성성'의 무력화지점이라는 양극단의 논점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대상이라고 간주되었던 소수자와 민중에 대한 보편적 기본소득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소수자라는 특이점이 관계성좌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차이를 낳는 차이로 향한다는 점과, 민중이라는 관계망이 자발적인 돌봄의 판이 된다는 점에 대한 대대적인 긍정을 의미한다. 특히 자기돌봄과 서로돌봄 사이, 커뮤니티돌봄과 돌봄모듈 사이, 우애로서의 돌봄과 환대로서의 돌봄 사이, 절대돌봄으로서의 아이와 노인에 대한 돌봄과 배치돌봄으로서의 가정 내의 복잡화된 돌봄 사이 등 여러 가지 돌봄의 유형과 성격 사이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이음새가 정동이다. 그런 점에서 돌봄의 사각지대 논의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정동순환의 이음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 이음새의 일종으로서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하나의 이행의 구성요소라고 본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나오며 : 정동자본주의를 넘어 정동해방의 기본소득으로

정동자본주의의 개막은 정동의 강렬한 가치, 다시 말해 욕망가치에 대해서 추출과 채굴의 입장에선 플랫폼의 등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공유경제를 주장하는 두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쉐어링으로서의 공유경제는 바로 플랫폼이 자신을 위장잠입전술을 네트워크나 제도, 시스템에서 수행할 때 스스로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쉐어링으로서의 공유경제는 오픈 엑세스 개념

이나 공동이용의 개념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자신을 공유경제라고 말한다. 우리가 대신 염두에 두어야 할 공유경제는 커머닝으로서의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관리, 공동소유, 공동제작의 형태를 띤다. 커머닝으로서의 공유경제는 아주 깐깐한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끄럽게 이용하는 쉐어링으로서의 공유경제와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명백한 차이는 감추어지고 숨겨진 전제가 된다.

플랫폼자본주의의 등장은 이제 정동이 갖고 있는 무한채굴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를 테면 사랑할수록 사랑의 능력이 증폭되는 것을 무한한 사랑으로서의 정동노동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계가 있고 고갈되기 쉽고 유한한 사랑으로서의 감정노동을 구분하는 경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동자본주의(=플랫폼자본주의)는 플랫폼이 공동체의 판으로 완벽히 가장되면서 사랑의 무한성과 같은 정동노동의 판이 깔리기를 원하는 자본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판을 대신 깔아 내적으로 질적 착취의 모습에 머무르는 플랫폼이지만, 그것에 포섭된 정동의 모습들을 면밀히 관찰한 사람이라면 금방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구원으로 여기는 종교나, 관계에서의 영적인 성숙으로서의 작은 공동체, 돌봄, 사랑, 우애, 환대의 탈물질화된 정동순환, 순수증여와 증여의 낙차효과, 볼 수 없는 것이 윤리와 미학 등과 같은 정동노동을 최대치로 설정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정동해방의 흐름이 미리 전제된 형태로 플랫폼의 판의 내부 이외에도 재야생화로서의 외부에 깔려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동자본주의가 정동의 채굴과 추출에 몰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정동해방과 활력해방으로 가득한 탈성장 전환사회가 하나의 잠재성이자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정동해방의 거대한 전환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발휘할 여러 모델 중 하나의 특이점으로서의 모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정동자본주의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탈성장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정동해방, 활력해방, 욕망해방, 돌봄해방의 판을 구성하는 이행의 구성요소로 만드는 실천이 유효한 것이다.